

경제단체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결정 ‘수탁위 일원화’ 반대”

경총·대한상의·무협 등 7곳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유감
대표소송, 결과무관 신뢰도에 타격
법률규정 등 4개 선결과제 제시



/뉴스시스

국민연금이 ‘대표 소송’으로 기업을 ‘마녀사냥’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자 경제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내 경제 7개 단체는 10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7개 단체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열린 지난해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표소송 추진 관련해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이 상정된 데에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몰두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본부로 두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에 맡긴다.

이번 개정안은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대표 소송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적극 참여한다는 스튜어디스코드를 도입하며 설립한 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해 사실상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수탁위가 대표소송을 전담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다른 대주주나 오너 등에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재계가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경제계는 연금보험료의 42%를 순수 부담하고 있어 대표소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이지만, 복지부 및 국민연금과 사전 의견수렴조차 갖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표소송은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며, 결국 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이같은 조치를 국민연금이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서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본분에 더욱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해당 지침 개정 전면 보류와 선결과제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관련 절차 및 결정 주체 등 중요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에 대해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그 영향력이 매우 커서 기업 경영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대표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 및 결정 권한 등 중요 사항을 수탁위가 아닌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로 직접 정하라는 것.

두번째로는 대표 소송 대상 사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론에 편승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사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이사 개인에

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으며 ▲ 해당 사실이 판결이나 당사자의 자백 등으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로는 철저한 검증장치 마련을 들었다. 대표소송이 승패와 관련없이 회사에 막대한 소송비용 피해가 불가피해서 헤지펀드들의 기업 압박용 위협소송으로 널리 활용된다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대표소송 제기는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운용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수탁위가 결정하게 된다면 수익률과는 무관하게 정치나 사회적 이해관계, 여론 등에 따라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금운용 본부가 실의 등을 검토해 결정하되,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최종 책임을 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또 기금 수익률이 악화될 경우 대표소송에 찬성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남소방지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세계 500대 부호 자산 1조弗 ↑... 中 슈퍼리치는 ‘자산증발’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2021 팬데믹’ 슈퍼리치 자산 변화

블룸버그 “부동산 등 자산가치 ↑”
일론머스크 자산 2735억 달러 1위
중 빅테크 부호 10인 자산 ¼ 날아가

팬데믹이 세계 슈퍼리치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풀린 유동

성 덕분에다. 세계 500대 부호들의 자산은 작년 한 해 동안만 무려 1조 달러(한화 약 1200조원)가 늘었다.

반면 중국의 슈퍼리치들은 지난해 최악의 시간을 보냈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공동번영’이 새로운 기조로 자리잡으면서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그대로 증발했다.

10일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세계 500대 부호들의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8조4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규모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가 2년째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만 주가는 급등했고, 부동산과 가상화폐,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산에 대한 가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S&P 500지수는 27%, 다우 지수는 19%, 나스닥은 21% 상승했다.

세계 최고 부호의 자리는 미국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차지했다. 총 자산은 2735억 달러로 압도적인 1위다. 작년에만 1175억 달러

의 자산이 늘면서 현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됐다. 프랑스 패션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세계 10대 부호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 이외의 지역이다. 자산 1771억 달러로 3위에 올랐다.

구글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도 지난해 자산이 각각 500억 달러 인팍으로 늘었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와 MS CEO 스티브 발머, 오라클 창업자 래리 엘리스 등도 10대 부호에 포함됐다.

작년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새로 이름을 올린 부호는 총 42명이며, 대부분 증시 호황에 기업공개(IPO)로 자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슈퍼리치들에게는 작년이 최악의 해가 됐다.

중국 슈퍼리치들의 자산은 규제강화와 ‘공동번영’ 기조 속에서 전년 대비



세계 최고 부호인 미국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뉴스시스

오하려 600억 달러가 넘게 줄었다. 연간 감소폭으로 보면 블룸버그가 억만장자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치다.

특히 빅테크 부호 10인의 자산 감소폭은 800억 달러에 달했다. 기존 자산의 4분의 1이 날아간 셈이다.

전자상거래 업체 핀둬둬의 황정 회장은 주가 하락에 자산이 429억 달러나 급감했고, 샤오미 레이첼 회장 역시 145억 달러의 재산을 잃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 200여개 흥삼제품
- +3만여개 인기상품
-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구글 ‘AR글래스’ 개발 관심 증폭

▶▶ 1면 ‘CES 밖 냉혹한 현실’서 계속

아마존도 CES2022에서 ‘알렉사’를 앞세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표를 던졌다. 참가를 강행한 스텔란티스가 아마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실제 제품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아마존은 추가로 ‘콰이어 TV’를 BMW ‘시어터 스크린’에 탑재한 모습까지 공개했다. 나사의 달착륙 프로젝트에 알렉사를 도입하겠다고 우주 진출 계획까지 발표했다.

아마존은 공개한 ‘빙 알람’은 다양한 센서를 통합해 보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IoT 장치다. 삼성전자가 ‘스

마트싱스’를 활용한 ‘팀삼성’을 강조한 가운데, 또다른 IoT 플랫폼인 알렉사도 생태계를 더 강화하는 모습이다.

그 밖에도 메르세데스-벤츠는 소프트웨어만으로 주행거리를 1000km까지 늘리는 기술을 CES2022에 앞서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였었다. 구글도 최근 AR글래스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CES2022에 공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많았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년만에 열리는 CES인 만큼 부스 전시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 발표가 무산돼 아쉽다”며 “현저에는 코로나19 확산 공포가 훨씬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